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 전영복

2009광주세계光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1. 광산업 메카 빛고를 광주에서 세계 최초로 빛과 광산업을 소재로 “2009광주세계光엑스포” 큰 잔치가 열린다.

오는 10월 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8일간 빛고를 광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빛과 광산업을 소재로 엑스포 큰 잔치가 열린다. 전세계 50여개 국가에서 200만명 이상이 빛고를 큰잔치를 찾아 빛이란 무엇이며 또 그 빛과 만나는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즐기며 뜻깊고 여유있는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광엑스포는 빛고를 광주의 도시브랜딩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빛고를 이름 그 자체가 그렇듯이 광주 이미지와 빛은 운명적 만남 같기도 하다. 광산업이 광주에서 발원하게 된 점 즉, 그토록 산업과는 인연이 없던 광주가 광산업을 지역전략 산업으로 선정한 것부터, 산학연관정이 뚝뚝 뚫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광산업집적화 단지조성과 광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정착, 금번 세계 최초로 열리는 광엑스포까지...

이제 광산업을 도시로 불려지는 광주는 세계에서 빛을 가장 잘 다루는 도시로, 나아가 세계 3대 광선진국을 목표로 내걸을 만큼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광산업이 광주지역의 확실한 먹거리산업이라 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들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사실 그간 광산업 육성사업의 성공요인은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으로

는 계속 성장·발전하는데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고 봐야한다. 세계3대 광선진국 진입과 지역의 확실한 먹거리 산업 정착을 위해서는 기왕에 탄탄하게 자리잡은 광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여, 산학연관이 다시 한번 재도약한다는 목표를 갖고 힘을 모아 광산업도시 광주의 도시 브랜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다. 이미 각종 통계에 나타나있듯 전세계 광산업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누가먼저 선점하느냐는 미리 준비하는 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준비는 지금부터 광산업체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주체 주제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광산업 CEO들은 규모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외부 자본력이 합해지는 등 합리적인 M&A나 전략제휴를 통하여, 광산업체의 몸체를 키워나감으로써,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의 규모 경제 실현에 CEO들 스스로가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이로써, 대내적으로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광기술 개발에 한차원 높은 R&D에 박차를 가 할수 있을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투자유치와 글로벌마켓을 리딩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길 수 있기에, 도전적으로 과감하게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방안 이라 할 것이다. (편드나 투자유치에 해외 우수업체들이 한국산업체의 몸집에 부정적 입장을 많이 나타내고 있음.)

둘째, 다른 한가지는 광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신기술개발 및 산업화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광은 모든 산업의 원천 핵심기술 산업으로 광+IT, 광+의료, 광+조선, 광+바이오, 광+자동차, 광+농업 등 어느 분야와도 융복합이

가능하기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산업의 불륨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 인재양성기관 등에서는 전문 인재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장중심의 양질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사 신입부터 중견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남아 지역산업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대학등 관련 인재양성기관에서는 끊임없는 전문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광기술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노력은 물론 기술이전을 통한 상품화 및 광기반 융복합화를 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산업체 등에 부단히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광산업육성지원 유관기관 단체들은 기관별 독자 지원 노력 보다는 목표가 광산업체의 발전육성에 있으므로 기관간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 인력, 시스템을 총동원하여, 업체들을 끌어들이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으로 제품(부품)생산력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현장 인력양성 지원 등 벤처 창업단계에서 부터 중소기업체들까지 자금의 어려운 시기에 맞추어 지원해 주는 일 등이 곧 지원 기관들의 본연의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광산업 CEO들과 연구원들과 대학들이 고민하는 한편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심의 육성 의지는 물론 정책적 배려와 함께 첨단산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해나가는데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침 세계는 저탄소, 친환경 녹색성장이 글로벌 이슈인 바, 녹색 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

돌이켜 보면, 10년전 어려운 환경속에서 오로지 광주지역에 맞는 산업다운 산업 하나 정착시켜보고자 하는 의지 하나로 기어이 일구어 낸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 태동 단계에서의 일화는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치더라도, 그 의지 하나만큼은 매우 가치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당시 국회산업자원 위원장으로서 본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동분서주 뛰었던 현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의 불굴의 지원 의지가 있었기에 탄생한 광산업육성 사업 1단계에서는 지역에 산업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프라 구축에 전념하였고, 2단계에서는 광통신과 LED 분야를 선택 집중함으로써, 다가올 녹색성장의 기수 LED산업을 미리 예견이나 하듯이 선구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 3단계는 아예 LED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함으로써 2008년 4월에 선포한 LED도시 광주는 확실하게 LED산업의 육성 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의 광산업육성에 대한 초지일관 지원 의지는 확고하다고 본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바탕으로 산업체들도 이제부터는 자립 성장을 한다는 사업가 정신을 정립해 나가야 할 단계라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3. 빛고을 광주의 진정한 빛이 될 2009 광주 세계 광엑스포 성공개최 기원!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광선진국 목표를 달성하고, 광주가 광산업 메카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몇가지 풀어야 할 숙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것이며, 그 실마리를 이번 광엑스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 광산업 후발국가였지만 그 규모는 작더라도 세계 광산업 국가 중에서 제일먼저 세계 광EXPO를 개최하는 국가로서 금번 광엑스포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는다.

